2012 9.09 연중 제 23 주일

제 1 독서 : 이사야서 35,4-7 ㄴ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제 2 독서 : 야고보서 2,1-5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 음 : 마르코 7,31-37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우리들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백인 사회안에는 참으로 정이 없다는것을 실감하며 삽니다. 그것은 모든 질서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정이 없는 사회안에서 마음만 믿고 살다가는 큰코를 다치고 맙니다. 믿고 마음을 다 주었다가는 거꾸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일이 종종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까 ? 오늘의 제 1 독서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살펴 봅시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백성이 바빌론 유배를 떠나기전 남유다에서 활동 하던 예언자이십니다. **"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 굳세어져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 복수가 들이 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 "** 신부인 저 역시 일상의 삶안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을 품게 되고 , 또한 신앙인이기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언제 찾아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안에 원망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을 신뢰할때 하느님께서는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를 주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할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재산을 조금만이라도 잘 처리 하셨더라면 가난에 찌들은 삶은 피할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십자가앞에서 예수님을 대면하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갖게 될때에 어머니께서 주신 **신앙**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품곤 합니다. 실상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 이웃과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이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이웃과의 싸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안에 도사리고있는 큰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은 이웃과의 싸움보다 비교가 안될정도로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투쟁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투쟁의 끝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마음안에 행복과 평화가 찾아들게 됩니다. 은둔의 삶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며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들입니다. 바로 이분들의 성덕이 공동체의 모범이 되고 다른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자들 역시 세상의 삶에 깊이 들어오게 되면 세속과 재물과 성적인 유혹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2 독서의 야고보 성인의 말씀은 제가 고해성사 보속으로 자주 드리곤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체 안의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성인께서는, 행동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면서 공동체 안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 해서는 안됩니다.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 고 하시면서 공동체안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차별행위**를 지적 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박사님도, 의사선생님도, 사장님도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지위와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 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민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민족을 만나며 살고 잇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저는 제자신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대접을 받고 , 부자나라에서는 짓밟히곤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야고보성인는 2000 년전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2000 년이 지난 지금 이 세상에도, 계급이 없어졌다고 하는 이 사회에도, 새로운 형태의 계급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일까요 ?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왜 우리는 로렉스로, 까티에르로 그 유명한 상품들로 치장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귀먹고 말더듬는이를 고쳐 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기적이 아니가요 ? 우리는 착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것을 다 보고, 모든것을 다 듣고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 우리는 혹시 진정 보아야될것은 보지 못하고 진정 들어야 할것은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 한번 되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제인 저에게는 묵상 시간이 바로 그 기적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나의 일상의 삶안에서 예수님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반성해보며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4-7 ㄴ

4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복수가
들이닥친다, 하느님의 보복이!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5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6 그때에 다리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는 냇물이 흐르리라.
7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늪이 되고, 바싹 마른 땅은 샘터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2,1-5

1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가령 여러분의 모임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추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합시다. 3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4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5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1-37

그때에 31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32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33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34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35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36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37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